

화학제품, 수출운임 부담되네...

해상운임 5월1일부터 인상 ... 미국·캐나다행 물동량 급증 탓

태평양항로운임협의회(TSA) 회원사들이 5월1일부터 미국행 해상운임을 20피트 컨테이너(TEU) 당 525달러, 40피트 컨테이너(FEU) 당 700달러씩 각각 인상한다. 캐나다행 수출 운임도 800달러 이상 인상될 예정이다.

일본선사인 MOL은 2002년 아시아발 미국행 물동량이 전년대비 약 20% 증가하는 등 최고치를 기록했다.

2003년 1/4분기에도 전년대비 25% 이상 늘어나는 등 물동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운임인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풀이된다.

선사들은 물동량이 크게 증가했지만 2002년 미국 서부항만 파업 등으로 인해 아시아-미주 운항 선박은 오히려 줄어들면서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 운임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하고 있다.

최근 몇년간의 운임 하락으로 2002년 TSA 14개 회원사들의 총 적자액이 약 20억달러에 달하는 것도 또 다른 요금 인상의 배경이다.

해운업계에 따르면, 물동량이 넘쳐나면서 하주들의 최대 관심사는 선박(화물적재공간)부터 확보하는 것이며 한동안 하주들의 손에 쥐어져 있던 가격협상의 칼자루가 해운업계로 옮겨지고 있다.

또 SARS(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)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중국을 출발해 북미로 이동하는 수출물량도 계속 호조를 보이고 있어 당분간 해운업체들의 호황은 지속될 전망이다.

<Chemical Journal 2003/05/06>